

“U-20 월드컵축구 숙박대책 시급”

이경신 전주시의원 “방문객 외지에 빼앗길 우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이 2017 U-20 월드컵 축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숙박시설 대책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경신 시의원(비례대표·사진)은 13일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숙박업소 부족으로 내년에 열리는 U-20 월드컵 축구대회가 빚내서 ‘납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 U-20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11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현재 전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30억원으로 국비 등 대회 예산 확보도 시급한 문

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회기간 24개국에서 800여명의 선수와 임원, 2800여명의 방문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주지역 숙박업소는 방문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실적 숙박시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내년 2월까지 완공 여부도 불투명한 오거리 라마다호텔 323개 객실과 르윈호텔 166개실, 경기장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 등이 있어 선수단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숙박 인프라 미비로 숙박 수요를 대부분 외지에 빼앗길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2013년 9월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와 크로아티아 평가전을 앞두고 양 팀은 “전주에 번번한 호텔이 없다”며 숙박을 거부, 대표팀은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숙박하고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파주 훈련장에서 당일 버스로 이동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회에 앞서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공정을 20%에 머물고 있는 라마다호텔의 공사 진척도를 상시 점검하고, 해외에서 전주를 찾는 축구팬들의 숙박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전주 KCC이지스 프로농구단 연고지 이전 문제와 관련, 전주시가 지나치게 저자세 협상으로 대안도 없는 농구장 신축을 약속한 것은 연고지 이전을 압박하는 농구단의 요구를 대책도 없이 대부분 수용해 한계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1400억원의 예산을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선언한 마당에 농구장 신축에 필요한 70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U-20 월드컵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위해 구성하는 민간 지원협의체를 모든 스포츠 산업을 상시 논의하는 기구로 확대해 월드컵 준비와 농구장 신축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강화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각종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도시 전역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인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는 전주시 소재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으나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 관리

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고,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경전 기전 야간 개장 및 콘텐츠 강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 등 2016년도 문화재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류씨 시조비인 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의 재실인 시시제(時時齋)를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김영재 기자

술자리 흥기 휘두른 50대 검거

술자리 상대가 자신보다 어린데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3일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를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오전 12시30분경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 앞에서 A(40)씨의 등을 흥기로 찌

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처음 만난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자신보다 어린데도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상을 입은 A씨가 달아나자 흥기를 들고 쫓아가다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시를 만에 인근 공원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안진수 기자

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실제 업주를 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장 실제 업주인 B씨와 함께 지난 2011년 10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에 오락실을 차린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개·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명의를 업주가 아니라 진짜 사장”이라고 거짓 진술해 실제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 “피고인이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는 14일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김승수 시장과 성준숙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주대사습놀이 자원봉사단 ‘사슴이’ 발대식을 갖고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자원봉사단 ‘사슴이’ 발대

대학생 등 80여명 구성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이끌어갈 자원봉사단이 꾸려졌다.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는 14일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성준숙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주대사습놀이 자원봉사단 ‘사슴이’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모집된 전통 예술과 전주대사습놀이 관련 있는 일반인과 대학생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사슴이’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기간 동안 경영지원팀과 공연지원팀, 행사운영팀에 배치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끼와 열정을 발산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경연과 축제가 결합된 지역의 대표 예술제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성공 개

최와 서로 하나가 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슴이’가 돼 대사습놀이 고유 브랜드 확신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자원봉사단 사슴이의 발대식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축제 거둬들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첫 출발”이라며 전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나흘 간 ‘황금연휴’ 카드사용 해외 몰려

국내 이용금액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3박 4일 ‘황금연휴’를 만들었지만, 정작 국내보다 해외 카드사용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급박하게 지정했는데도 연휴를 맞아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KB국민카드가 지난 5~8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동안 개인 체크·신용카드 국내 이용금액 집계한 결과, 2~5일의 이용금액보다 5.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이용금액은 10.9% 늘어 국내 이용금액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증가했다.

국가별로 해외 이용액을 보면 상위 10개국 가운데 일본에서의 사용액이 44.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싱가포르(34.0%)와 태국(31.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홍콩(-17.1%)과 프랑스(-15.5%)는 오히려 카드 사용액이 감소했다.

국내 카드 사용액은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면세점 카드 사용 금액은 무려 39.8% 늘었고, 이용 건수도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지역별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중 경북지역 증가액이 15.0%로 가장 높았고, 대구(12.4%)와 전북(12.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에서의 사용액은 거주자는 0.7%만 늘었고 외지인은 3.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 줄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결제액은 21.9% 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대표되는 휴게음식점이 36.8% 늘었다. 택시와 고속버스 카드 결제액도 각각 22.1%, 20.3% 씩 늘었다. 항공사와 렌터카는 11.4%, 9.4%감소했고, 주유·충전소 이용액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4.1% 줄었다.

유통분야는 편의점과 백화점이 각각 33.9%, 31.7% 늘었지만, 대형할인점은 17.3% 줄어 전체 4.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화관(-11.1%)과 서점(-28.6%), 온라인 티켓판매(-5.6%)가 포함된 문화산업 분야는 16.1% 줄었다. /안진수 기자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